



정교회주보

제2418호

2023.4.3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크레타의 키싸모스에는 6세기에 세워진 성 미카엘 성당(사진)이 있다. 중앙에 큰 돔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Rotonda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다. 성당 내부의 벽화는 7~9세기에 걸쳐서 그려졌으며 지금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부활 후 제3주일 (향유가진 여인 주일)

성 야고보 사도
성 클레멘트 수도자
(제2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2조 찬양송 " " 10
- 아리마태아 요셉 찬양송 · " " 75
- 향유가진 여인 찬양송 · " " 76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1~7 252
- 복음경 : 마르코 15,43~16,8 ...98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주님은 부활하셨느니라!

향유가진 여인들은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에 와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일어난 변화에 걱정했나이다.

굴러진 돌 앞에서 그들을 서로 말했나이다. 그토록 먼 밀하게 봉인하였건만, 무덤의 봉인은 어디 있으며, 빌라도가 보낸 파수병들은 또 어디 있는가?

하지만 찬란한 한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묻자, 그들의 불안은 말끔히 사라졌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눈물 흘리며 찾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불멸하는 생명과 빛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셨느니라.

'오순절 전례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성사도 바울로는 필립비인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시다.”(필립비 1,29)

즉,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서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귀중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데살로니카 전 3,2)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믿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느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부르시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튼튼한 반석 위에 삶을 세우기 때문에 인생의 모진 풍파와 거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선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이라는 선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

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겪을 희생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고통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딜레마를 만납니다.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처럼 물리적인 순교와 고문을 겪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양심의 순교’를 겪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부당함을 행사하는 강자의 편에 설 것인가.’

–‘내 유익을 희생해서라도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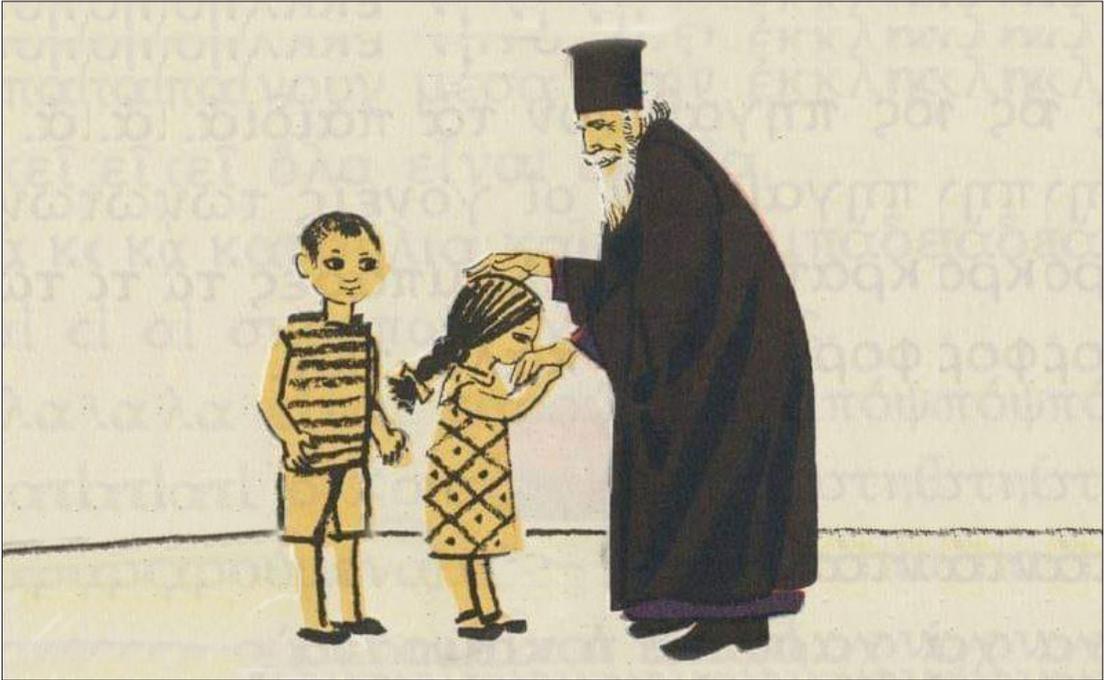
–‘정직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경우라도 내 원칙과 신념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원칙과 신념을 저버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믿음”과 함께 가는 “고난”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두 선물을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모두 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복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정교인은 왜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추나요?

에피파니오스 신부 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현대의 서구 문화에서 사람들은 만나면 대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거나, 서로 껴안거나, 뺨에 볼을 맞대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정교회에서는 주교나 사제에게 인사를 건넬 때, 축복을 요청하면서 성직자의 오른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사할 때뿐 아니라 성화와 십자가와 성해(聖骸) 등에 경배할 때 입을 맞추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축복을 받고 성직자의 손에 입을 맞추으로써 우리는 성직자가 대변하는 그리스도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교나 사제는 사도적 전승을 통해 서품을 받음으로써 단지 고유한 유산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하여 끊임

없이 거룩한 것 주위에 머무르며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이며,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혈병을 앓던 여인은 치유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루가 8,48). 또한 죄 많은 한 여인은 회개하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루가 7,38).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참회하며 돌아오는 아들을 맞기 위해 달려 나가서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루가 15,20)

우리 정교인은 이런 인물들의 예를 따르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성직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내일 5월 1일(월) 축일을 맞이하시는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부활에 관한 교부 금언

-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 모든 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월, 부활의 날은 일 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다.
- 성 마카리오스 수도자
- 부활은 다리가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는 다리이다.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 부디 우리 삶의 가운데에도 계시기를...

소식

■ 용미리 부활 성당 성찬예배

지난 주일(23일),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성찬예배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묘지를 다니면서 기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성화 및 유물 보수 작업

5월 5일부터 13일까지, 그리스에서 성화 및 유물 보수 전문가들이 방문합니다. 서울에 머물며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성 막심 성당에 있는 오래된 성화와 성물, 유물의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 작업을 도우며 작업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선은 사랑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

성인의 가르침

고백자 성 막시모스는 자선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

“금전으로 행해지는 자비도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더 큰 자비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그러하다. 진정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은 정욕에서 빨리 벗어나 하느님의 사랑과 지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이웃도 사랑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아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선을 베푼다.“

